



당·열량 줄이고 단백질 더했다
저속화 트렌드
니



Life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독신
사업 본격화
L2



“수포자’ 만드는 선행학습... 잘못된 교육방식 바꾸고파”

(수학을 포기한 사람)

속깊은 인터뷰

정승제

이투스·EBSi 수학 선생님

하필, 개그맨 이수지가 ‘대치맘’을 패러디하고, 추적60분이 방영한 ‘7세고시’가 화제가 된 시점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승제 이투스·EBSi 선생님을 만났던 날의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학군지 엄마와 ‘선행 학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수학 일타강사의 만남이었다. “자식이 영재이길 바라는 부모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기는 학원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쓴 소리가 시작부터 거침없이 쏟아졌다.

그는 국내 최정상급 일타강사임에도 선행학습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꿈꾼다. 실제로 tvN ‘티쳐스’는 물론, 인터넷 강의(인강), 유튜브 채널 등을 오가며 선행에 의존한 교육 방식이 오히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무리한 선행을 요구하는 부모를 향해 “수학은 진도를 빨리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끝없이 조언한다.

쓴 소리 뒤엔 고통 받는 학생들이 있다. 수시로 뒤바뀌는 교육 정책, 선행을 부추기는 학원, 학부모의 욕심 만든 사교육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다.

그는 사교육이라는 철물성에 구멍을 내는 중이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 몸담은 스스로를 선생이 아닌 ‘생선’이라 칭하고, 스타강사가 된 이후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EBSi 인강에 열정을 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승제 선생님은 “지금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조금 씩이라도 증명해 간다면, 누군가 언젠가는 귀 기울이지 않겠나”라며 “나 한

사람으로 부족하겠지만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열심히 뚫어보려 한다”고 했다.

그의 직함을 강사가 아닌, 반드시 ‘선생님’으로 쓰겠다 마음먹은 것도 이때였다. 한 마디도 거르지 말고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일부 발언은 수위 조절이 불가피했다. 선생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다.

- 한국 교육은 왜 이 지경이 됐나.

“모든 문제는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시작된다. 영재학교는 공교육과정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교육 기관이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을 영재학교로 보내겠다는 무모한 욕심 때문에 7세 고시와 같은 무리한 선행학습이 시작됐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굳이 어려운 길에 밀어 넣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학대나 다름없다.”

- 학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컨설팅 업체, 학원들은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그들에겐 이 시장이 놓칠 수 없는 ‘황금노다지’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왜 아이를 방치하느냐’라는 공포심을 조성하고, 죄책감만 건드리면 부모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학원들이 부모를 공략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오죽하면 학원의 성패는 유명한 강사보다 유능한 상담 실장이 좌우한다는 말이 나왔겠나.”

학군지에서는 이미 당연시 되는, 소위 ‘의대(의과대학) 가는 공식’이란 게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인 수1, 수2를 모두 끝내고, 중학교 이후 이 과정을 몇 바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가에서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을 따로 만들고 어린 학생들을 5시간씩 붙잡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 고등학생 5명 중 3명은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수포자의 비율은 중학생 46.2%, 고등학생이 되면 59.7%에 달한다.

정 선생님은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여기는 교육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은 전혀 모른 채 공식과 문제 유형을 모조리 외우며 진도를 쫓는 선행학습이 수포자를 만들고 있다.



정승제 강사가 4일 서울 마포구 구름담은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영재이길 바라는 부모님 욕심에 선행 부추기는 학원방식 더해져 고등학생 5명 중 3명 수포자 만들어

수학, 진도보다 개념 이해 중요해 암기 아닌 수학 원리에 초점 뒤야

성공한 수포자 파티 ‘위너스 클럽’ 선행 없이도 1년 내 성적향상 증명 수포자 단어 종식시키는 것이 ‘꿈’

- 선행 학습은 왜 문제인가.

“선행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를 언제 시작하건 정상적인 과정을 거처라는 얘기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공식을 외우고 기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풀어야 한다.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선행의 초점은 수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맞춰져 있다. 공식과 유형을 달달 외워 문제에 빨리 접근해서 푸는 방법만 가르친다. 모든 사교육 강사들도 이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고객(학부모와 학생)의 니즈를 맞춰야 하기엔 어쩔 수 없는 것뿐이다. 학교에서조차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시간이 용납되지 않고, 집에서 얼마나 아는지 보다 진도를 몇 바퀴 돌렸는지가 더 중요한 환경을 만든다. 모두 수포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 그럼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뭔가.

“중학교 1학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 문제 풀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수학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모든 수학 교과서, 수학의 정석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한다. 최소 30분 이상,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을 때의 쾌감을 안다면 수학을 절대 싫어할 수가 없다.”

-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닌가.

“그 나이에 맞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수학 전공자들이 몇 백 년에 걸쳐 다듬고 다듬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원리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원에서는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몇 바퀴 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가 스퀘어링 당한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 선생님은 매년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모아 축하하는 ‘위너스 클럽’ 파티를 연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정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적을 이룬 학생들을 축하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선행학습 없이도 제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위너스클럽은 뭔가.

“수학 6~7등급을 받던 수포자가 1년간 강의를 듣고 최소 3개 등급 이상 오르면 위너스클럽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 중 가장 장기간 성적 향상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준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서는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심지어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학생들도 있다.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1년 안에 수학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잘못된 사교육 환경을 옳다고 믿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장 통쾌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 수십 년간 제 때 제대로 공부하면 선행 없이도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구멍을 뚫고 있다. 힘들지만 티쳐스를 계속 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열심히 바늘구멍을 내다보면 누군가는 저 사람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 선생님께서 꿈이 있다면.

“수포자라는 단어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다. 네이버에 수포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038년에 종식되었다. 정승제로 인해 수학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갈 길 먼데 외인 타자 케이브마저 부상... ‘최하위’ 위기의 두산
▲대니엘 강, 내달 한국서 열릴 LET 아람코 챔피언십 출격
/사진 뉴스시스

▲NC파크 관중 사고에...K리그도 경기장 시설물 안전 점검
▲동부건설 골프단, 김수지·박주영·지한솔·장수연·윤민아 프로 재계약

▲손흥민, ‘역대 최다’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양민혁은 영플레이어상
▲K리그1 483명, K리그2 507명 등 총 990명...정기 선수 등록 마감